



한국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독립 문학 운동을 이끌어가는 우리 시대의 문학 전문지

『쓰림-문학의 이름으로』 제4호 발행

문학실험실 / 140*240 / 416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발신: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대표 이인성)

수신: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

담당: 최하연 (문학실험실 사무국장) 010-4212-0752

한국문학의 실험 정신을 위한 디딤돌, [숲-문학의 이름으로] 제4호 발행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15년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의 제4호가 나왔다. 이 잡지의 기본 방향은 문학의 본질을 사유하는 질문 그 자체를 향해 있다. 잡지의 창간사에서 밝힌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전 지구적 문화산업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에 맞서는 ‘강렬한 부정의식과 저항적 실험 정신을 문학 내부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해온바, 이번 호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배어 있는 깊이 있는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학의 새로운 실존이 가능한 공간”을 위한 탐색, 특집으로 꾸며

이번 특집의 주제는 문학 공동체이다. 기본 의도는 창간사에서 밝혔던 “문학의 새로운 실존이 가능한 공간” 즉 미래의 어떤 문학 공동체를 희미하게나마 그려보자는 데 있다. 이는 ‘문학실험실’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문학실험실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장 논리—당연히 정치·사회적 논리가 뒤따르겠으나—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문학 공간을 조성해보자는 의도 외에는 어떤 이념적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었다. 대항적 혹은 대안적 이념의 기획이나 그 사회적 조직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활동은 어쩌면 반공동체적이기조차 하다. 오로지 문학적 행위 주체들이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형성해나갈 관계의 장(場)만을 요청하는, 반공동체적인 공동체! 이 역설은 그런데 문학이 오랫동안 은밀히 꿈꿔온 것이 아니었을까.

이번 특집이 다루는 문제들의 스펙트럼은 다소 산만하게 펼쳐져 있다. 그만큼 문제 범위가 넓다는 뜻이겠으나, 그렇다고 그 구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그 구도는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이란 철학적 성찰로부터 시작한다. 이 성찰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층적이며 다면적으로 훑어나가며—그래서 단상의 형식일 수밖에 없겠는데—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미지의 공동체를 더듬는다. 이에 반해, 「공동체와 죽은 타인의 얼굴」이 집중한 역사적/문학적 성찰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발현되는 순간에 초점을 모은다. 그 순간은 빛나면서 동시에 스러져가는 그 무엇인가로 존재하지만, 그 절대적 체형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준다. 다음 단계의 두 편의 글은 보다 문학적인 범주 안에서의 탐색이다. 「커뮤니티: 시즌 n」은 작가란 존재의 실존 방식과 실제적 문학 행위를 따라가며 그 속에서 꿈틀대는 ‘나’와 ‘우리’의 흔적을 단계적으로 추적해나가고 있으며, 「홀로 함께 있음, 도래할 시의 공동체」는 ‘홀로 함께 있음’이라는 모순어법을 통해 구현될 문학 공동체의 한 미래를 김혜순 시인의 최근 시집에 기대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특집 후반부의 논의들은 그런 성찰을 지금 이곳의 문학 사회에 관한 관찰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다. 「출국장에서: 작란 트리뷰트」는 시인들의 특수한 유대 관계로 빚어진 ‘동인’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학장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폭탄보다 시끄러운」은 문단의 실제 사건들이 기폭제가 되어 점화된 최근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새로운 문학 공동체를 의식화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웰컴 투 메타픽션 월드」는 최근 30여 년간 산출된 전위적 소설이 어떻게 ‘따로 또 같이’ 전진해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왔는지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실례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맨 마지막, 「문학 독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는 이 특집의 구성에서 홀로 동떨어진 것 같지만 특별한 보너스처럼 덧붙여진 흥미로운 실증적 보고서이다. 문학이 독서를 통해 의미를 충전하며 어떤 완성체에 이르는 것이라면, 앞으로 독자의 능동적 역할과 작가와의 역학적 관계에 관해서는 훨씬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문예지로는 매우 드물게 극작가의 희곡을 게재, 텍스트 실험 공간 등 풍성한 작품도 실려

[숲-문학의 이름으로]는 매년 상권에 희곡 작품을 청탁해 실음으로써, 기성 문학잡지는 물론 연극계에서조차 지면으로부터 외면받아온 ‘희곡’을 순문학의 주요 장르였던 본연의 이름으로 돌려놓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이미 연극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젊은 극작가인 고재키 작가의 신작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한편, 이번 호의 ‘텍스트 실험 공간’에서는 약간 특이한 시도를 해봤다. 이때까지의 이 공간은 전적으로 작가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었다면 이번엔 편집진의 의도가 개입했는데, 우리는 작가에게 자신의 작품을 다시 읽으며 다시 써볼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존 텍스트의 문장과 문장 사이를 새로운 말들로 채워보라는 것이었다.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랄까.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듯, 말들에서도 그 ‘사이’가 중요하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갈등하고 교합하는 자리, 잠깐의 침묵 속에서 숨을 쉬며 생각을 가다듬고 다시 상상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작은 기획에선 매체와 전위예술의 시대적 길항을 고찰

‘전위적 의식, 실험적 실천’을 주제로 한 2호 특집과 ‘문화산업 시대의 대중문화와 문학’을 주제로 한 3호 특집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4호의 ‘작은 기획’은 문화산업적 기술 매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던 시각적 전위예술을 논하는 세 편의 글을 모았다. 자본이 지배하는 미디어 산업이 각종 대중문화의 소비를 일상 속에 고착화시키고 있는 시대에, 그 매체의 기술적 가치가 미학적 가치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이 어떤 자기 혁신을 성취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문화, 미래의 삶을 궁리하는 데 매우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과학 기술에 의해 “인간을 조건 지우는 시스템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하느냐는, “기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닌, 기계와 관련되면서 자유로운 인류의 이미지”(움베르토 에코)를 어떻게 구현해나가야 하느냐는 더 이상 피해서도 피할 수도 없는 심대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툼 창작문고> 시리즈 2권과 3권 출간, 리뷰로 만나다.

지난해 말과 올 2월, 문학실험실의 첫 단행본 기획인 ‘툼 창작문고’ 시리즈에 두 권의 연작소설집이 추가되었다. 새로 간행된 김종호의 『디포』와 김선재의 『어디에도 어디서도』는 잡다하고 가벼운 현실 추수적 소설들이 난무하는 이즈음에 자기만의 소설적 자의식과 탐색을 고통스럽게 드러내는 작품들로, 작지만 밀도 깊은 ‘콘셉트 작품집’을 지향하는 이 시리즈의 성격에 잘 부합한다고 믿는다. 이 두 작품집의 보다 자세한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호 끝자리에 두 책에 관한 자체 리뷰를 즐거운 마음으로 덧붙였다.

차례

특집 : 새로운 문학 공동체의 모색_성찰과 관찰

보이지 않는 것_소통과 공동체에 대한 단상들 | 박준상
공동체와 죽은 타인의 얼굴_역사적/문학적 기억 속에서 | 김형중
커뮤니티: 시즌 n _문학에서 ‘우리’란 누구인가 | 김정연
홀로 함께 있음, 도래할 시의 공동체_김혜순의 『피어라 돼지』에 기대어 | 심진경
출국장에서: 작란(作亂) 트리뷰트_‘동인’ 활동의 공동체적 자장(磁場) | 정한아
폭탄보다 시끄러운_페미니즘적 시각이 그리는 문학 공동체 | 양정연
웰컴 투 메타픽션 월드_I1990년대 이후 전위 소설 진영의 형성 | 노태훈
문학 독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장은수

특집에 덧붙여: 현장의 목소리: 문학·나·우리

문학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김엄지
물방울-인간의 공동체 | 유희경
시인‘님’과 팬‘분’의 탄생 | 최규승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희곡 우리들 눈동자가 하는 일 | 고재귀
매우 그렇습니다 | 김경욱
비유추의 계 외 2편 | 백은선
불행한 사람들 | 안보운
마음먹은 사람 외 2편 | 오은
러시아 인형_인간극장 외 2편 | 이민하

실내악_전화벨과 알코올 2중주 외 2편 | 정재학

지난밤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 | 진연주

텍스트 실험 공간

문장과 문장 사이_「커피잔은 어떻게 해서 깨어지는가?」의 경우 | 김종욱

작은 기획: 기능적 반전의 미학: 기술 매체와 전위예술_‘무엇’과 ‘어떻게’ 사이에서

매체의 혁신, 새로운 전위예술의 탄생 | 유원준

백남준의 불완전한 매체들과 전위 | 안소현

영화의 눈부신 변혁 그리고 빛의 소진_‘다큐멘터리’라는 이름으로 | 서현석

시시비비

시민 저항권과 민주주의 광화문 촛불과 광주시민항쟁 | 정의진

그때 그 실험

풍경을 그리는 시인의 허무,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 증명_오규원의 『순례』를 읽기 위하여 | 조연정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나와 당신이 잊(않)어버린 것이 이 소설에 있다

김종호 『디포』와 김선재 『어디에도 어디서도』 | 김나영

제4호 필자 소개

(가나다 순)

고재귀 | 극작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2002년 ‘신작희곡페스티벌’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양철지붕> · <공포> 등 6편의 희곡과 <당신이야기> · <마녀> 등의 오페라 대본을 썼으며, <엄마, 여행 갈래요?> 등의 공동 창작에 참여했다. ‘창작집단 독’의 동인으로,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김정연 | 서평가.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서비행』 · 『난폭한 독서』 등의 저서를 펴냈으며, 『문학과 사회』 편집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김경욱 | 소설가.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작가세계』로 등단하여, 『소년은 늙지 않는다』 등 3권의 소설집과 『개와 늑대의 시간』 등 3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서사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나영 | 문학평론가. 1983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 등단하였고,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엄지 | 소설가.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0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 가운데』와 장편소설 『주말, 출근, 산책: 어두움과 비』를 펴냈다.

김종욱 | 소설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졸업했다. 201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과천,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펴냈다.

김형중 | 문학평론가.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켄타우로스의 비평』 · 『후르비네크의 허』 등 5권의 평론집과 산문집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를 펴냈다. 현재 조선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태훈 | 문학평론가. 1984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중앙일보』의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박준상 | 철학자. 1966년에 태어나, 파리8대학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빈 중심: 예술과 타자에 대하여』 · 『바깥에서:

모리스 블랑쇼의 문학과 철학』 등의 저서와 『무위(無爲)의 공동체』·『발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등 4권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백은선 | 시인.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2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가능세계』를 펴냈다.

서현석 | 문화비평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시카고미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영화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괴물 아버지 프로이트』·『미래 미술』(공저)·『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공저)를 펴냈으며, 다원 예술 잡지 『옴.신』의 편집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진경 | 문학평론가.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떠도는 목소리들』·『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등을 펴냈다. 현재 『자음과모음』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강대학교·서울예술대학 등에 출강하고 있다.

안보윤 | 소설가. 1981년 인천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5년 『문학동네』의 신인 장편 공모를 통해 등단하여, 『악어떼가 나왔다』·『모르는 척』 등 5권의 장편소설과 단편집 『비교적 안녕한 당신의 하루』를 펴냈다.

안소현 | 큐레이터·미술평론가. 1976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X 사운드: 존 케이지와 백남준 이후>·<백남준 온 스테이지>·<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2015 랜덤 액세스>·<퇴폐미술전>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했으며, 현재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양경언 | 문학평론가. 1985년 제주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문학플랫폼 <문학3>의 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페미라이터.

오은 | 시인. 1982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2002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유에서 유』를 펴냈다. '작란' 동인이다.

유원준 | 미디어아트 디렉터.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 『뉴미디어 아트와 게임 예술』과 『게임과 문화연구』(공저) 등을 펴냈다. <아트센터 나비>의 교육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미디어 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의 디렉터로 일하면서 홍익대학교·송실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유희경 | 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오늘 아침 단어』·『당신의 자리-나무로 자라는 방법』을 펴냈다. 현재 시집 전문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하 | 시인. 1967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2000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환상수족』·『음악처럼 스캔들처럼』·『모조 숲』 등을 펴냈다.

장은수 | 문화비평가·출판편집자.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저서로 『출판의 미래』를 펴냈다. 현재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이며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의진 | 불문학자.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파리8대학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 프랑스 문학예술 이론, 프랑스 현대문학과 문화를 연구하며 발터 벤야민, 자크 랑시에르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프랑스어권지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재학 | 시인.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96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어머니가 촛불로 밥을 지으신다』·『광대 소녀의 거꾸로 도는 지구』·『모음들이 쏟아진다』를 펴냈다.

정한아 | 시인. 1975년 울산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어른스런 입맞춤』을 펴냈다. '작란' 동인이다.

조연정 | 문학평론가.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만점의 시간』과 연구서 『한국 문학의 가능성』(공저)·『김수영 연구의 새로운 진화』(공저) 등을 펴냈다. 현재 『문학과사회』 편집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진연주 | 소설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장편소설 『코케인』을 펴냈다.

최규승 | 시인. 196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2000년 『서정시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무중력 스웨터』·『처럼처럼』·『끝』과 육필 시집 『시간 도둑』을 펴냈다.